

올해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

AI, 민주·생태·역사, 학생 마음건강 ‘온 힘’

학력신장·책임교육

두가지 분야로 구성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6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등 2개 분야에 대한 2026년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학력신장 분야는 △독서·인문교육 △수업혁신 △교과학습 강화 △AI 교육 △특성화고 취업 △교육활동 보호 책임교육 분야에서는 △민주·생태·역사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다문화교육 △유아 발달·방과후 지원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학력신장은 더 과감하게 추진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보다 확실히 해 전북교육을 한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게 이날 제시한 10대 핵심과제의 지향점이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특히 △AI 교육 △민주·생태·역사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3가지를 올해 전북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새로운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독서·인문교육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문해력 향상 기반이자 학력신장의 토대인 독서·인문교육을 현충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침 10분 독서 △학교 도서관 이용 활성화 △학교급별 독서 토론 확대 등 책 읽는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아침 10분 독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이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550개교 참여를 목표로 삼았다.

학교 도서관 이용은 도서관 활용 수업 확대와 매주 금요일 학교도서관 가는 날 운영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

학교급별 독서토론을 활성화하고 이와 관련한 우수 실천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문해력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수업혁신

수업혁신은 '질문과 토론 있는 교실'을 조성하기 위해 △개념기반 탐구수업 확산 △서·논술형 평가 기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화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학력신장 - 독서·인문, 교과학습 강화, AI 교육 등 6개

책임교육 - 민주·생태·역사,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4개

반 강화 △수업·평가 체계 확산 △주제별 국제교류 수업 강화 등으로 강화한다.

먼저 개념기반 탐구수업 확산을 위해 240명 규모의 수업혁신 지원단을 활성화하고 개념기반 탐구수업 연구학교·선도학교 25곳을 운영한다.

또한 질문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20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초등학교 1,000명과 중등학교 1,000명 등 2,000명가량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추진한다.

서·논술형 평가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하고 문항 출제 및 제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한다.

수업·평가 체계 일반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실천 연구회를 운영한다.

국제교류수업의 경우 언어·문화와 과학·수학, AI·SW, 예술·체육, 진로·직업,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지원한다.

▲교과학습 강화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확대, 중위권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학력향상 도전학교 집 제고 등 교과학습도 강화한다. 특히 중위권 학생 지원에 힘쓴다. 초등 3~6학년 2만8,000명을 대상으로 학습계획 및 전략관리 수업 보조자료인 학습플래너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초등이화사전, 초등수학 개념노트, 초등영어활용노트 등 교과별 탐구노트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방과후 학생 수준별 학습지도도 강화해 중·고등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데 공을 들인다.

기초·기본학력을 토대로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향상도전학교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교과학습지원 학습코칭 등 학습관리 지원 집 제고를 통해 학습역량을 한양한다.

▲AI 교육

AI교육은 올해 전북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새로운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 교육은 크게 △초·중고 AI 활용

교육 강화 △전북형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교원 AI 수업 역량 강화 등 3가지로 추진한다.

우선 학생과 교원이 쓸 수 있는 학교 현장 교육용 소프트웨어 4종을 지원하는 등 초·중고 AI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AI 중점학교 80곳,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는 100곳까지 늘려 AI·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꾀하고 전북형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한다.

교원 AI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집중 연수, 교육혁신 지원단 운영, 에듀테크 연구회 지원 등에 나선다.

▲특성화고 취업 지원 확대

특성화고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 특성화고 확대 및 전북형 채용연계 교육과정 운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 향상을 추진한다.

지역특화 특성화고는 전북글로벌특성화고 15개교, 합안형 특성화고 3개교, 마이스터고 5개교로 확대한다.

또한 전북형 채용연계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 이수 후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접수비 및 교재비를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인센티브를 확대해 직업

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육활동 보호

교원 보호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된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은 물론이고 교원 마음건강 회복,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연중 2차례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중대교원침해지원단과 교육활동 보호 회복조정지원단 등 교육활동 보호 조직을 꾸릴 계획이다. 특히 지역 교원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비율을 13.7%에서 20%로 확대한다.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교원 침해 피해 교원 및 심리 소진 교원 대상 심리검사 강화 △개인 심리 상담 및 치유 지원 연계 기관 확대 △교육활동회복 조정실 구축 및 교육활동보호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14개 교육지원청별 업무경감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AI 기반 교원 업무지원도구의 기능을 확대한다.

▲민주·생태·역사교육

민주·생태·역사교육은 AI 교육과 함께 올해 추가된 핵심과제다.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헌법교육 기반 시민·민주 교육 혁신을 꾀하고 전북형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한다.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탄소중립 교육과정 수업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80개교를 중심으로 탄소소매장 감축을 실천한다.

역사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헌 중심으로 강화한다. 지역 독립운동사 유적지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역사 유적 및 인물사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역시 올해 추가된 핵심과제다.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상담활동을 통한 마음 치유, 위기학생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이 주요 사업이다.

사회정서교육은 중점학교와 교사연구회 운영을 포함해 마음치유·생명

지킴이학교 운영, 위기학생 예방 뉴스레터 발송 등으로 활성화한다.

상담을 통한 마음 치유는 위(Wee)클래스 운영 지원과 위센터 운영, 저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위클래스와 위센터 운영을 기본으로 병행형 위센터와 가정형 위센터 운영,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등 다층적으로 지원한다.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은 국제결혼 증가, 중도 입국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으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꾸준히 커지면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지역 거점 다문화교육 활성화, 다문화학부모 자녀교육 지원 강화가 주요 사업이다.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1:1 집중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형 한국어 학급을 유치원까지 확대 설치한다.

다문화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10개 언어로 번역된 학교 교육 이해 자료도 배포한다.

▲유아발달·방과후 지원

유아를 대상으로는 △언어·신체·정서 발달 지원 특색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쓰레기 물품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

유치원 30개원을 선정해 유아 중심 방과후 특색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을 지원한다.

돌봄교실운영은 윤종일·저녁·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거점형·연계형 틈새돌봄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돌봄교실을 확대·운영한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10대 핵심과제는 해마다 교육 현장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선정할 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 현장에서 검증된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성과를 정책의 출발선으로 삼아 그 흐름을 단단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올 에듀버스

주 4회로 운행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올 상반기부터 에듀버스 운행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주 관내 공립 초·중학교 및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포함)의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에듀버스의 운행 일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4회로 1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운행 신청 가능 일수도 전년 대비 49일 늘어났다.

특히, 학교의 일정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운행 공백을 줄이기 위해 상시 지원요청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즉각 안내해 학교 맞춤형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의 운행범위(전북특별자치도 내) 및 운행차량(4인승, 1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채선영 교육장은 "에듀버스 운행 확대를 통해 다양한 현장 학습과 진로 체험 등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AI·SW 첨단산업 인재 양성 '맞손'

우석대, 한국오라클과 협약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글로벌 IT 기업인 한국오라클 유한회사와 손잡고 AI·SW 기반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지난 5일 우석대학교 AI혁신추진위원회는 전주캠퍼스 문화관 5층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교육센터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석대학교 AI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운태 대외협력부총장과 김현웅 한국오라클 교육센터 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AI·SW 기반 첨단산업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산업 부트캠프(AI 분야)를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IT 전공자 및 비전공자를 위한 맞춤형 AI·SW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교육과정 고도화 △글로벌 기술 자격 취득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교육 인프라 및 인적 물적 자원 공유 △전북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



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운태 AI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맞춤형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AI·SW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결되는 실무 중심 인재 양성 체계를 한국오라클과 함께 구축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웅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교육센터 본부장은 "우석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교육을 더 확산시키고,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인재 양성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미래 첨단산업을 이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대 주요 건물 등 체험형 콘텐츠로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디지털 인문학 XR 플랫폼 구축

'우리학과 자랑 XR 공모' 참여 학생 설계 콘텐츠 기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인문학 연구소(소장 조대연)를 중심으로 디지털 인문학 교육·연구·홍보 XR 플랫폼 구축을 완료해 주목받고 있다.

이전에 구축된 XR 공간은 전북대 주요 건물과 상징물을 비롯해 전북대학교 학과의 연혁과 비전, 교육과정, 진로, 학생 활동 등을 체험형 콘텐츠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지정된 온라인 주소(www.joais/jbnu-campus)를 통해 실제 XR 공간에 접속해 가상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중심으로, 융복합 미디어콘텐츠 개발 전문기업 라이프스킬즈(대표 이동호)와 교육 콘텐츠 기업 오늘배움(대표 주방현)이 협력해 추진됐다.

두 기업은 Spot Virtual 기반 공간 설계와 시각적 구성, ThingLink를 활용한 인터랙션 구조 설계 등 전 과정에 걸쳐 기술 전문과 제작 지원을 제공하며 XR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XR 공간은 인문학연구소가 주관한 '우리학과 자랑 XR 공모



전북대학교 디지털 인문학 XR 콘텐츠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설계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은 Spot Virtual을 활용해 각 학과의 특성과 정체성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했으며, XR 전체 공간에서 인문사회관을 클릭하면 각 학과별 홍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 학생들은 XR 콘텐츠 제작 경험과 이해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학생은 "학과 정보를 직접 가상 공간으로 구현하면서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고 밝혔고 또 다른 학

생은 "XR 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대연 인문학연구소장(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은 "이번 XR 구축은 학생들의 창의적 기여와 전문 기업의 기술 협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 실습"이라며 "전북대학교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인문학 체험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디지털 인문학 XR 플랫폼은 단순한 학과 홍보를 넘어 교육·연구·홍보를 통합한 확장형 디지털 인문학 인프라로 평가된다.

향후 디지털 인문학 교육 자료와 연구 성과 전시, 학과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신입생과 학부교, 외부 방문객에게 대학과 학과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홍보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